

컬쳐핏 면접 질문

1. Ownership / 초창기 몰입 각오

Q1.

“단님이 말한 것처럼 ‘초기 멤버 = 사실상 코파운더’에 가깝잖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2025년-2026년까지 **본인 삶에서 소식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지금 커리어에서 1순위는 소식연구소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싶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다른 선택지랑 비교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 성장에 베풀하는 기간**으로 두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생계와 건강을 고려해서 주당 5~6일, 하루 순수 몰입 시간 6~8시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 코드·제품·데이터**에 쓰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0→1~100까지의 성장 경험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과제를 찾고, ‘내가 맡아서 끝까지 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발굴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1.

“그 ‘페이스’를 수치로 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주 6일, 하루 순수 개발/공부 시간 n 시간 이상’처럼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지금도 주 6일 이상은 이미 개발/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패턴을 그대로 회사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로는

- 평일: 본업 + 소식연구소 기준 하루 4~6시간 몰입
- 주말: 최소 하루는 4시간 이상 제품/데이터/도메인 공부 정도를 1년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오래’보다 **집중도 있는 4~6시간 블록**을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회복·운동·정리로 써서 장기적으로 버티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리질문 2.

“실제로 지금도 퇴근 후 사이드 프로젝트 하신다고 했는데, 소식연구소에 합류하면 **사이드 프로젝트 vs 회사 일** 비중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이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합류하게 되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거의 **소식연구소 관련 실험**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앱을 만든다 해도 ‘꼭꼭 타이머 실험’, ‘LoopOS 데이터 플로우 연습’ 같은 식으로
회사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방향으로만 할 거고,
전혀 상관없는 사이드는 6개월~1년은 아예 접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Speed / 빠른 실험 문화 수용도

Q2.

“저희는 ‘깔끔한 Clean Architecture’보다 ****‘3-4시간 안에 유저가 만져볼 수 있는 흐름’****을 더 중시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단님 입장에서, ‘조금 지저분해도 일단 나가보자’는 결정을 얼마나 자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저도 지금 단계의 회사에서는 **학습 속도가 아키텍처 완성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제처럼 ‘3-4시간 안에 하나의 루틴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선
‘유저가 실제로 놀러볼 수 있는 흐름’이 1순위고,
아키텍처는 그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건 빛이다’라고 서로 합의한 부분은 꼭 기록해두고,
반복 사용되기 시작하면 리팩터링 타이밍을 잡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꼬리질문 1.

“예를 들어 오늘 ‘이건 빛이다’라고 쓰고 나간 코드가 있으면, 본인이 보통 그걸 어떻게 관리하나요? TODO/이슈/문서 중 어떤 방식으로?”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저는 빛은 **명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코드 상단에 `// TODO: [리팩터링 이유]` 를 남기고
- 노션/이슈 트래커에 ‘기술부채’ 섹션을 따로 만들어 태스크로 등록합니다.
특히 ‘언제까지 안 갚으면 위험해지는지’, ‘리팩터링 시 예상 범위’를 짧게라도 적어두고,

스프린트 플래닝 때 짧게라도 그 리스트를 보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2.

“반대로, ‘이건 아무리 급해도 여기만큼은 절대 이렇게 못 짤다’ 하는 **본인만의 레드라인**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예를 들면

- 하나의 파일에서 UI·상태·비즈니스 로직·네트워크 호출까지 전부 섞여 있는 구조
 - 전역 상태를 마구 공유해서, 어디서 상태가 바뀌는지 추적이 안 되는 경우
-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급할 때도 최소한 ‘UI/상태/저장’ 정도는 나눠 두면,
나중에 LoopOS나 CoachOS로 확장할 때 발목을 덜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3. Problem Definition / 대표랑 의견 충돌할 때

Q3.

“단님이 커피챗에서 말한 것처럼, 저랑 명확이랑 **우선순위나 문제 정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님은 ‘이 UX는 꼭 고쳐야 합니다’인데, 제가 ‘지금은 데이터 쌓는 게 더 중요해요’라고 말하면, 그 상황에서 단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먼저 제가 왜 그 UX를 중요하다고 보는지,

- 어떤 지점에서 사용자가 막히는지
- 이탈 로그나 피드백이 있는지

최대한 근거를 모아서 짧게 정리해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데이터 우선이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스프린트에선 데이터, 다음 스프린트에서 UX 개선 후보로 올린다’처럼 **순서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일단은 팀 방향을 따르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다만 그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제가 끝까지 트래킹해보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1.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회사 입장에선 ‘누가 맞냐’가 아니라 ‘어떤 가설을 먼저 검증하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라운드는 데이터 가설부터, 다음 라운드는 UX 가설’처럼 **게임 턴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계속해서 한쪽 의견만 반영된다고 느껴지면, 감정 섞지 않고 ‘이 가설도 한 번만 검증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릴 것 같아요.”

꼬리질문 2.

“대표의 결정이 마음속으로 100% 납득 안 되는데, 팀 방향상 따라가야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는 기준이 있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저는

1. 회사 미션/비전과 정렬되는 방향인지,

2. ‘데이터로 나중에 검증 가능’한 선택인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제 관점과 달라도 ‘일단 가보자’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두 가지 모두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그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합의를 다시 시도할 것 같습니다.”

4. Startup Fit / 불확실성과 시스템 변화

Q4.

“지금도 회사에서 지라/노션/슬랙 등 시스템 도입 주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소식연구소에서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수준으로 툴·프로세스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변화 속도를 실제로 1년 동안 겪으면, 단님은 어떤 상태일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혼란은 있을 텐데, 저는 그 혼란을 ‘내가 시스템을 정리할 기회’라고 보는 편이라 오히려 정리자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왜 바꾸는지, 뭐가 나아졌는지, 어떤 건 실패했는지를
짧게라도 문서화해서 팀이 덜 헤매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잦은 변경은 피로도를 올리니,
어느 순간엔 '이건 최소 3개월 써보고 평가해 보자'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1.

"도입했는데 실패한 시스템/툴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거나 철수시킬 때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실패한 툴도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 왜 도입했는지
-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 어떤 팀에게는 맞고, 어떤 팀에게는 안 맞는지
로그처럼 짧게 정리하고, '다음에 비슷한 도구를 검토할 때 체크리스트'를 남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도입/철수 과정에 모두 참여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소식연구소만의 작업/협업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꼬리질문 2.

"본인이 만든 프로세스를 제가 '이건 그냥 없애죠'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때 단님이 듣고 싶은 설명이나 최소한의 예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네, 괜찮습니다. 다만

- '왜 없애야 하는지'
- '어떤 기준에서 더 나은 선택인지'
두 가지만 짧게 설명 들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심플함을 위해 지금은 이게 더 맞다'라든지,
'코치/사용자에게는 복잡도가 너무 높다' 같은 기준이 있으면

제가 그 배경까지 이해하고 다음엔 더 맞는 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Growth Curve / 3개월 뒤 본인 모습

Q5.

“단님이 말한 것처럼 ‘3년 안에 리드급’이 목표라면,

저랑 같이 일했을 때 3개월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고 싶은 지점이 어디인가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3개월 뒤에는 단순히 화면 하나를 맡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의 사용자 흐름(타이머→포만감→기록→리포트)**을

설계부터 구현, 간단한 데이터 해석까지 **단독으로 책임지는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또, LoopOS 관점에서 ‘이 엔티티/이벤트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도메인 이해도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엔 ‘이 플로우는 단님이 오너다’라고 말해도 되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꼬리질문 1.

“그 목표를 위해 3개월 동안 **은향/명학/고문님에게 각각 어떤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1-2개씩만 말해볼 수 있을까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은향님께는

- LoopOS/Inner Loop OS 관점에서 제가 짠 화면/데이터가 맞는 방향인지

- ‘지금 이 설계가 1년 뒤에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고, 명학님께는

- 실제 코칭/운영에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지

- 사용자의 감정/섭식 패턴 관점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고문님(데이터/AI)께는

- 제가 쌓는 이벤트/스키마가 모델링 관점에서 쓸 만한지

- 최소한 피해야 할 반패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중간 지점을 채우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2.

“반대로, 저희가 단님께 기대하는 3개월 후 모습(예: LoopOS V0의 일부를 스스로 설계/구현)이 있는데, 그 기대치가 높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선도 있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LoopOS V0의 일부를 설계/구현하는 것 자체는 도전하고 싶고, 다만 그 과정에서

-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 설계가 필요한 부분 vs 그냥 따라가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걸 스스로 지키고 싶습니다.
- '안다'고 말해도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받고 싶어요."

6. AI 활용 철학 / "정체도 아니고 퇴보" 발언 연결

Q6.

"단님이 커피챗에서 '바이블 코딩을 쓰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 같다'고 표현해줬던 게 인상 깊었어요.

소식연구소에서는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쓸 거고**, 심지어 '코드 70%는 AI가 짤다'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단님이 스스로의 성장과 학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AI를 안 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AI가 짤 코드를 내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제 성장 기준으로 두고 싶습니다.

중요한 로직은 한 번은 직접 구현해 보고,

이후 반복/보일러플레이트는 AI에게 맡기되,

결과를 리뷰하면서 '내가 직접 짰어도 이렇게 짤까?'를 계속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정체가 아니라 **가속도**를 얻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1.

"그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 검증하시나요? (예: 직접 설명해보기, 테스트 작성, 다른 구현 시도 등)"

- 10점 예상 답변 [추론]

"보통 세 가지를 씁니다.

1.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화이트보드에 로직을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면 이해했다고 보고,
 2. 핵심 로직은 유닛 테스트를 직접 짜서, 경계 조건을 제가 설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3. 같은 기능을 더 단순한 버전으로 한 번 다시 구현해봅니다.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면 '아직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2.

"AI가 제안한 설계와 대표/고문이 제안한 설계가 다를 때, 단님은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최종 기준은 **우리 회사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정답'이 있어도,

- 우리 팀 속도
- 데이터/AI 파이프라인 구조
- 코칭/운영 방식

이 세 가지와 안 맞으면, 대표/고문이 제안한 설계를 우선 보겠죠.

이상적으로는 둘을 비교해서,

'AI 설계의 장점 중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뽑아 섞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7. Conflict & Feedback / 강한 피드백 문화

Q7.

"저랑 명학은 A Player 기준 중 하나로 '**강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PR 보면서 '이 구조는 우리 팀에선 절대 허용 못 한다' 수준으로 직설적으로 코멘트하면, 단님은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행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순간적으로는 움찔할 것 같지만, 그 피드백을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시도/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방어하거나 해명하기보다,

- 어떤 관점에서 안 맞는다고 보셨는지

- 대안 구조는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제가 놓친 점·앞으로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따로 처리하고, 피드백 자체는 **다음 시도의 재료**로 쓰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1.

“지금까지 받았던 피드백 중에 ‘좀 세게 느껴졌지만 결국 도움됐다’고 느낀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이전 회사에서 ‘단님 코드 스타일은 회사 코드베이스와 너무 다르다’는 피드백을 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는데, 그 이후로는 팀 코드 스타일을 먼저 읽고,
그 틀 안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피드백 덕분에 ‘혼자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꼬리질문 2.

“반대로, ‘이런 방식의 피드백은 나도 버티기 힘들다’는 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사실의 근거 없이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원래 이런 걸 못 해’ 같은 식으로 **성격/능력을 일반화하는 피드백**은 피하고
싶고,
최대한 ‘이번 결과물/이번 선택’에 집중된 피드백이면
어느 정도 수위가 세도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차분할 때 한 번은
‘이런 표현 방식은 저에게는 동기보다는 위축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Mission Fit / 우리가 하는 일과 본인 삶의 연결

Q8.

“소식연구소는 그냥 헬스케어 앱이 아니라, **정서·섭식·신경계 루프**를 다루는 회사예요.

단님 입장에서, ‘이 문제(폭식, 감정기반 섭식, 자기혐오 루프)를 해결하는 일’이 **개인적인 레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저도 제 삶에서 감정 관리나 루틴이 무너지면, 일/관계가 같이 흔들린 경험이 있어서

‘섭식·정서·습관’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합니다.
 주변에도 몸·음식 때문에 삶 전체가 잠식되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단순히 ‘잘 팔리는 앱’보다는, **한 사람의 루틴·자기 인식이 바뀌는 제품**에 제 개발 역량을 쓰고 싶었습니다.
 소식연구소 미션이 그 방향과 잘 맞고,
 제가 만드는 화면/기능이 누군가의 포만감/폭식 루프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건 제 커리어에서도 꽤 큰 의미라고 느낍니다.”

꼬리질문 1.

“개발자로서 ‘이 문제에 기여했다’고 확실히 느끼려면, 1년 뒤 어떤 지표나 사례를 보고 싶으세요? (예: 유저 피드백, 실험 데이터 등)”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정량/정성 둘 다 보고 싶어요.

정량으로는

- 타이머/기록 기능을 꾸준히 쓰는 유저의 폭식 빈도 감소

- 포만감 인식 관련 과제 완료율 상승

같은 지표를 보고 싶고,

정성으로는

- ‘이 기능 덕분에 내가 폭식 루틴을 한 번 끊었다’

- ‘포만감/감정을 다르게 보게 됐다’

같은 피드백이 몇 개라도 쌓이면,

제가 단순히 버튼을 만든 게 아니라 루프에 영향을 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질문 2.

“반대로, 회사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정서·섭식 회복에는 별로 기여 못 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단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당장은 회사 상황에 따라 상업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제 가치관과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고,

제품/데이터 레벨에서 다시 미션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그 시도조차 불가능한 문화라면, 그때는 길게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9. Role Evolution / 2026-2027 팀 빌딩 계획 안에서의 본인 위치

Q9.

“팀 빌딩 계획 상으로는 2026~2027에 **Core Team 5~7명**, 이후 AI/데이터/그로스 인력이 붙게 되거든요.

그 그림 안에서, 단님은 **어떤 역할로 인식되고 싶으세요?**

단순 ‘주니어 플러터 개발자’가 아니라, 2년 뒤 ‘이 사람은 ○○ 담당자’라고 불리고 싶다면 뭐라고 쓰고 싶나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2년 뒤에는 ‘꼭꼭/LoopOS 프론트 오너’ 혹은

‘식사 루프 경험 전체를 책임지는 앱 개발자’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UI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 어떤 로그를 쌓아야 LoopOS가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지

- 코치/사용자가 어디서 막히는지

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프론트엔드와 데이터 흐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꼬리질문 1.

“그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본인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예: 데이터/AI 이해, 설계 경험, 협업 경험)은 어디이고, 그걸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가장 약한 쪽은 **데이터/AI 파이프라인을 실제 서비스에 붙여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사이드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해봤지만,

상용 앱에서 LoopOS처럼 정서·섭식 데이터를 다루는 구조는 처음이라

이 부분은 은향님/고문님과 밀착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책이나 강의보다, 실제 우리 로그/코칭 데이터를 보면서

스키마/이벤트 설계를 같이 해보는 방식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꼬리질문 2.

“반대로, 지금 당장 들어와도 ‘이건 내가 팀에서 제일 빨리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지금 당장이라면

- Flutter 기반의 화면/흐름 구현 속도
- 작은 기능을 빠르게 MVP로 만들어 보는 부분에서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과제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핵심 흐름을 우선 구현’하는 작업에는 바로 투입되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최종 핏 질문 /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포인트

Q10.

“저희도 A Player 기준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류하자고 적어놨어요.

단님 입장에서, 반대로 ‘소식연구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세 가지입니다.

1. 0→1~100 전 과정을 같이 겪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2. 그 제품이 ‘정서·섭식·습관 루프’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
3. 데이터/AI/코칭이 한 팀 안에서 실제로 섞여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Flutter 포지션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LoopOS라는 큰 그림 안에서 제 개발 인생의 초반을 같이 설계할 수 있다는 게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꼬리질문 1.

“그 포인트가 만약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단님은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네, 조심스럽지만 꼭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실망했다’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그림과 지금 상태 사이에 이런 간극이 보인다’는 식으로,

예시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문화라면, 제 역할도 제한될 것 같아서
초기에 그 부분은 솔직하게 소통해보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2.

"제 입장에서는, 단님이 합류했을 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려면, 처음 3개월 동안 어떤 모습이 가장 강하게 보여야 할까요? 단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 10점 예상 답변 [추론]

"처음 3개월 동안에는

- 제가 맡은 영역(예: 타이머/기록/리포트 흐름)에 대해 스스로 이슈를 찾고 제안하는 모습,
 - 피드백을 받으면 1-2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오는 속도,
 - 코드/문서/협업 툴 등에서 '내가 먼저 정리해보겠다'고 나서는 태도
-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킨 것만 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LoopOS/꼭꼭Fit의 한 축을 맡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Summary

인터뷰 목적

- 잠재적인 초기 팀원/공동창업자급 개발자와의 적합성 평가 면접 ▶
- 서로의 작업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 ▶
- 후보자의 헌신도와 성장 잠재력 평가 ▶

후보자의 작업 스타일과 우선순위

- 3년간 연애도 포기하고 일에만 집중할 계획 ("원양어선에 간다는 마음으로") ▶
- 현재 패턴: 본 직장 퇴근 후 매일 저녁 10-11시까지 개발 작업 수행 ▶
- 주말에도 약 3시간의 공부와 나머지 시간은 개발에 투자 ▶
-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으나, 합류 시 포기할 의향 있음 ▶
- 스스로를 도전적인 환경에 배치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음 ▶

- 압박이 없으면 늘어지게 되어 진행이 안 되는 경향 ▶

의사소통과 팀 역학

- 직설적인 피드백을 선호하고 있는 그대로의 소통 방식 선호 ▶
- 감정을 숨기거나 방어적인 피드백은 선호하지 않음 ▶ ▶
- 수직적인 환경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팀에서 더 능력을 발휘 ▶
-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는 스타일 ▶ ▶
- 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 해소법: 목욕탕 방문 등 ▶ ▶
- 직원들 각자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환경을 선호함 ▶

성장 목표와 동기

- 3개월 안에 "1인분 이상"을 해내는 것이 목표 ▶ ▶
- 책임감과 오너십을 중요시하며 성장 동기로 삼음 ▶
- AI 도구 사용에 긍정적이며 더 많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봄 ▶ ▶
- 성장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가치관 ▶

제주 이전 고려사항

- 제주도 이전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여김 ▶
-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 ▶ ▶
-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위주의 생활을 계획 ▶

초기 스타트업 지원 이유

-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
- 무언가를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구 ▶
-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바람 ▶
- 개인의 성장과 서비스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험을 중요시 ▶ ▶

개인적 동기

-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찾음 ▶ ▶
-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하며 단순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음 ▶
- 힘든 경험을 통해 소박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 ▶ ▶

Notes

Transcript

어... 네 어 그... 단님은... 오후 출근이신 건가요? 아 네 오늘은 오후 출근입니다 오..되게 자유롭군요 아 네

가능하시면 저희랑 일을 같이 하게 되신다면 어떨지 조금 서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고 얘기가 길어지면 최대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멀망했어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코피챗에서 얘기한 것 처럼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진짜 닷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게 굉장히 초기 멤버라고 사실상 코카코파운더에 가깝게 이제 가까우신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Q. 현실적으로 닷님의 인생에서 이 팀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싶으신지? 아, 저의 일상에 비중이 있어요? 삶에? 삶에 비중이 있어요? 일단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쵸.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죠

50%로 가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물어보면 안되겠죠? 10%는 강아지가 있었고요 아~~ 저희도 고양이가 3마리여가지고 네 이해를 하는걸 넘어서서 네, 할 말이 많지만 말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 3년은 연애도 포기하고 일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라인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가 저는 좀 더 성장의 중점을 더 보고 싶어서. 진짜 원앙어선에 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앙어선 너무 적절한 비유네. 그리고 약간 구멍 송송 뚫린 거 알죠? 네. 근데 항상 그래왔어요. 인생에서 뭔가...

약간 뒤의 가리를 무서워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 되게...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단님이 스스로를 조금 몰아넣고 어떤 환경에 배치하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측면에서 단님은 어떤 그런 환경에 스스로 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고통 감수인지 그냥 어떤 스틸을 즐기시는 건지 약간 스트리밍을 즐기는 타입보다는 항상 그랬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첫 번째로 항상 그랬을 때 결과가 좋았고 안 그러면 늘어지게 됩니다

뭔가 안좋아하게되고 늘어지게되고 하다보면 뭔가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페이스를 달리는 페이스를 수치로 표현을 하면은 네 어떤 식이세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순수하게 개발은 몇 퍼센트 정도 하고 5분은 몇 시간을 하고 뭐 이런 비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수치로 표현해 주신다면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이제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해서 평일에는 보통 10시에서 11시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뭐 씻고 자고 뭐 잠깐 한 시간 정도 휴식을 하고 바로 자는 거죠. 주말에... 네네.

주말에도, 주말에는 이런 공부나 항상 3시간 정도 들어가서 3시간 정도 이런 공부와 나머지는 대발을 합니다. 중간중간 점심 먹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런 시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책상에 있는데 있는 것 같고

수업은 하시고 계신거죠? 네네네네네 네네 오.. 되게 안 힘드세요? 조금 있어요 죽겠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 많은 타입이구나 그것보단 몸이 흔드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합류하시면 사이드...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왜냐면 이제 그 사이드가 거의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여쭙봤고요 네 네 어... 어...

그러면은 어 이거는 제가 그때 이제 단님이랑 커피챗을 하고나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부분 같아요 그 서비스 비즈니스적인 결정과 그런 아키텍처적인 결정에 있어서 제가 계속 밀어 붙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서비스 로직이 먼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제 말이 소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많은 동료들을 만나 왔지만 서로 설득되는 가정을 통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던 것 같아요 닥님이랑은 이렇게 잠깐 얘기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네 일을 해보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저는 리더 말을 따르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않는.

음...그거는 일단은 저 스스로는 이해를 해봐야겠죠 예시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공동체잖아요? 저의 목적도 이게 잘되야 내가 잘된다 라는 목적이 있는거고 대표님은 더더욱 그러시겠다 그런 공동체적 마인드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Q. 유부상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반응해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해보신 어떤 점을 한 번 더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이 좀 애매하거나 좀 헛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바쁘게 흘러가면서 아, 네. 이런 상황에서 단님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거미를 정리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거는 사실 이제 항상 바쁘다 보면 되게 부러져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씹어서 독립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독립된 것과

현재 목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여쭙보겠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때는 이런 이유가 있
다 근데 요구상은 좀 애매하잖아요 요구성이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쭙보려고 할 것 같아요 개발자인 은양님이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갑자
기 제가 뜬금없이 배면을 받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비슷한 케이스로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소비자의 물건을 원하는대로 수정을 해주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면 최대한 쉽게 모두가 이해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해서 원하는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게 우
선일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좋습니다 제 약간 단념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저랑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저는 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내일부터 이거 해 이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지랄을 도입한다. 갑자기 내일 지랄 폐지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런
사람과 맞춰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너무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약간 괴인으로 통하거든요. 괴인이요 괴인? 제가 생활에서 불리는 별명은 바로바
로맨 오 진짜 그래서 뭐 성향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당일날 자전거 타고 전국 유주를
간다거나 생각나는게 있으면 바로 해야하는 타입이라 더 그 방향으로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꼭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다를 수 있죠 내 마음이 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따르
시는 거면

저는 사실 좀 약간 딱히 큰 설명 없이 갑자기 이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제가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매우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
에 이거를 최소한의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랑 저랑 명확히
는 잘 안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누구를 설득시키는 일보다는 같이 빨
리빨리 바뀌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계속 설
득을 해야되면 저는 계속 달리다가 멈추게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들의 속도가 모두 다르고 팀원이 속도가 느릴 경우에 그게 뭐... 코딩의 속도
가 아니더라도 저... 제가 생각하는 그... 그런 조직의 방향조차 이제 계속 달라지고 요구사항이
계속 달라지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명왕님이
그랬어요 명왕님은 이제 큰 조직에서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느
끼기에 닥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오히려 즐기실 수 있는 성향인지 궁
금해가지고

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일텐데. 저는 사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목욕탕을 한 번 가도록 하면서 괜찮아져서 섹시 같아 저희
는 크로스메이트 하거든요 그럼 담임께서 혹시 근무하시다가 다른 개발자와 기획자도 마찬가지로
죠? 이제 운명이 좀 안 맞았던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차지해주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
아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을 위해서는 상대방 판단이 맞았었거든요 그러면 수용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네.

웃기는 것도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네네네. 뭐.. 내 의견이 맞다고 해서 분위기를 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거는.. 팀워크가 아닌 것 같고, 다만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좋네. 네, 그럼 지금 당장은 만약에 그 사람을 맞을 수 있어도 네.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한 후, 몇 달 뒤, 좀 더 넓게 보자는 전략적으로는 반대의 힘을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설명하면 OK를 대부분 해주십니다. 왜냐면

제대로 동작을 안해요. 이걸로 인해서 출시가 안돼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 단위를 무리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지금 있는 한에서 최소한으로를 항상 요구하려 하는 편이라서 일단 공동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님은 그러면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 딱 갈등이 발생했어 이러면 어느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되는 편인지 예를 들면 너무 이 충격이나 에너지가 벌써 예상이 돼서 소진이 돼 버려 가지고 방구석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나 이거 갈등 났어? 싸워 이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제가 싸우거든요, 보통. 아니면 속으로 일단 삭혀, 제가 대표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거지 저는 파이터형은 아니구요 네네네 화이트하우스는 아니고 어.. 생각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냥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막 뭔가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면 혼자 풀리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코딩 뭐 프로그래밍까지도 안가요 그냥 갑자기 제가 뭐

출퇴근 보고를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님은? 내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런 상황이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단님은 제 말에 그냥 일단은 오케이 하고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쪽인지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어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기본 센스는 그런데 그것도 공동의 목적으로 봐야되는거죠 그 관계를 따져봤을때

심각한 저해가 있을 수 있다면 한번 여쭙보는 게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 하면은 어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장님께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떤 느낌의 피드백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을 제일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냥 어? 너 이거 못했어. 잘했어.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직설적인 걸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게 담임이 봤을때는 어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쪽의 전문 영역이 좀 떨어지는데도 그런 말을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생각을 잘 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뭔가...

근데 좀 좋아하지 않는 피드백이라면

지금 이게 너무 감정적인건 아닐까 하는 피드백이 있을수도 있겠고 어 혹은 어 이게 뭐라 해야되지? 네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피드백일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방어적인 피드백? 네네네네네

그냥 저는 뭔가 사람 숨을 파악하기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네 근데 이게 속으로 많이 삭히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제가 그분을 파악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도 대표가 아니라 팀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내가 기분 나빴든 말든 난 개시장 마을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대표가 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거나 소개만 담아두고 있는 이게 보이면 저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따라가서 막 먹살 잡고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보어도 아닌데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직설적 분위기 들으면. 애초에 어떻게 표현하자면 T같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대문자 T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닷님이 저랑 그런 부분에 성향이 맞을지 아직도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은 까보지 않는 말썹은 없어서. 어? 약간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데. 약간 마음의 일기장을 회사에 하나 공개해놓고 막. 음... 아, 그 헬로 같은 거는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네.

아 근데 그 누가 적었는지 익명으로 적은거 아니야? 아 뭐 뭘 너 아니면 나인 상황에서 익명으로 서 그거 보고 어... 저... 아니 상관없어 아... 아니면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전 멘토님이 항상 시켰는데 뭔가 회의마다 PMI라고 나뉘던 전까지 포함해서 약간 악성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저는 이런 피드백을 쓰려는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차라리 말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묵혀두고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나중에 이 사람 남긴 걸 봐야 돼

이런 것보다는 이 화두가 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합의를 가장 잘 일하셨다고 느끼세요? 그게 있다면 그 환경의 특징이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수직적인 곳에서는 힘이 안나옵니다 의견을 못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동하는 데 제약이 걸리고 뭔가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고 저는 자유로운 팀, 수평적인 팀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형 팀에서 힘이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게 나한테 가치적으로 중요하지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담임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가 갑자기 커지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 퇴근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일단 항상 제 일본 목적은 의질러, 에이스, 리더 좋습니다 그게 일본 순위라서요 그러다 보니 숙청적인 느낌이 반님께서는 더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반님이 스스로... 내양형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또 체질이

시균요 체질인가? 하여튼 바라는 성장 방향성은 리더균요 아... 친구가 되려나? 아... 그거 하나 안 되던데? 친구가 되려나? 제가...

저는 이제 이번 해를 보내면서 배운 것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를 하되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미리 공유를 드리고 아 네 본인이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게 제가 진짜 성격도 안좋고 약간 좀 독재자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내가 말한 거 밀고 가야 돼 내 말이 맞을 확률이 80-90%라는 성향이 일단 좀 강하고요 어... 그델 신내?

저는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게 많이 좌절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담임이 말하시는 부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의 그런 자기 확신적인 면 근데 저는 그게 대표라는 사람한테는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평 리더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오늘과 내일이 바뀌고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직원분들은 진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경험상으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았는데 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거는 담임이 그때 커피챗에서는 3년안에 미드급 되고싶다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딱 3개월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 1월부터 했으면 1, 2, 3월이 됐어요. 그때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생각해본다면 어디일까요? 3개월이요. 3개월 안에 성장해야죠 그럼요 성장해야죠 일단은 그 지점이 있다면

글쎄요, 어떤 영역, 전체적인 영역이겠죠? 아마 말씀하시는 분은. 어, 그냥 뭐 지금 가장 성장하고 싶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 리더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양인이 짚어본 것 같아요. 아닌데요?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원래 이전에는 취미도 많으니깐 뭔가 한가지 기계보단 여러가지를 썼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제 성향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개월 후에 성장 지점이 나온다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뭔가 1인분 이상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3인분은 하고 싶은데요? 우선 3인분 저는 저는 AI 발전속도만 따라가면 10인분은 요새는 기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 팀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3개월 안에 그런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저희도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입장인데 본인께서는 일할 때 내가 3개월 동안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너쉽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그런 이게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3인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내일, 남의일을 별로 가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AI를 써라고 밀어붙이는 편이거든요 네 물론 한쪽에서는 계속 AI에 의존하면 바보가 된다는 설도 있지만 저는 잘 쓰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메타 인지가 높아지고 빠르게 학습하고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아키텍처적이 아닌 부분에서는 다 세부적인 코드는 바이브 코딩을 해라라고 제가 담임한테 강요를 할 수 있잖아요 어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스스로의 성장이란 학습을 관리하실 수 있을지 어 근데 저도 쓰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가 어찌됐든 시대는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러면

개발자한테 그 센스있는 컨셉 구현보다 중요한건 집의 뼈대인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안에 시멘트를 발라라 벽지를 어떤걸로 해라를 AI한테 바뀌는거고 어찌됐든 쓰는방법 그리고 더 잘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고 결국에는 검수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저도 사과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유튜브도 보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런 저희가 다루는 문제들이 근데 시장이 담임한테 의미가 있는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것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까요? 아뇨아뇨. 소개 안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복싱 유형이었어가지고요. 어 거의 100킬로 가까이 찍었다가 진짜요? 지금은 이제 한 80 중간까지 뺐는데 그러니까 60킬로에서 100킬로로 점프를 한거죠 지금 다시 빼고 있는데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명상? 같기도 하고요. 명상? 명상을 좋아하시나 보네.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실 반님이 좀 전에 대답해 주신 부분에서 제아닌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이랬던 경우도 배달음식 시켜먹고 했다 했잖아요. 그때 좀 그런 게 발생했었나 보네요.

어 그건 아니고 약간 인생에 암흑기가 잠깐 있었어가지고 그때 매일 피자 한판 먹었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둑분이랑 동거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아, 아닙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출퇴근 패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평일, 주말, 일요일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10시에서 12시까지 개발을 좀 하시더라도 본인만의 리듬이 있을텐데 만약에 저희가 제주에 오신다면, 제주를 체류해 주신다면 본인에게 좀 현실적인 그리는 어떻게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오게 된다면 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업무에 관한 거...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오를 하고 가는 거고 제주도에 아무 영구가 없는 원양어선이라고 설명을 하다 들었지. 네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 키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막 가서 제가 즐겁게 놀 것 같고 다른 생각은 전혀 안들어갔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뭐.. 경영 이런것도 하지만 사실 코칭 서비스 코치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담당에서 100kg까지 또 뭐.. 증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좀 걱정이 되는게 네 사람이 확 변하면

내가 기존에 좀 채웠던 나의 삶의 리듬으로써 채웠던 나의 감각들이 있을텐데 그게 갑자기 공허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일만 갑자기 막 우리 상민 씨 비중이 엄청 많으시고 이 정도는 없겠는데 아 여기 단님 뒤에 배가 너무 숨어있는 게 너무 웃겨 원양어선같아서 침몰한거잖아요 침몰해있어 폭식으로서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사실 큰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크로스빌리도 같이 가고 싶지만 혼자서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무작정 다른 회사에 투자해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너무 좋지만 당연히 평소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쵸 어 궁금해가지고 저는 인생에 고비가 꽤 많았거든요 한 3-4분정도 고비가 있었는데

사람은 그 시기에 찼던거죠. 큰 수술을 한 번 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시기를 몇 차례 건너와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일만 해도 이렇게 우주같이 너무 큰 일을 겪어서 이제 이제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신 거군요. 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오는 거라 생각하고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뭐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행복한거고 그런 삶을 일단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면 목욕탕 가면 되죠. 저희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담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담임이 궁금한 부분 여쭙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포지션이나 내가 뭐 리드를 하거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건 느껴졌는데 이게 꼭 저희 팀이어야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왜 초기 팀인가 라는 부분도 저는 잘...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몇가지 이유가 되겠조? 첫번째 이유는 일단은 제주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냥 딱 그것만 할 수 있게 그냥 환경에 걸을 가두는

그러한 첫번째 이유가 있었구요 그쵸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회사가 별로 없긴 하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작되는 지점 시작되는 지점이라면 일단 이게 만들어지는게 제가 되는 그런게 많지 않잖아요 뭐 회사일이라면 회사일이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내가 부가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게 두번째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게 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게 세번째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온전한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분을 받아서 내가 뭐 회사가 뭐 10년 이렇게 잘 커가지고 M&A를 하거나 IPO를 하는 걸 위해서 사실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로지 나와 프로덕트의 성장 말고 어떤 종결점에 대한 그런 의미나 잘하는 점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자가 된다는 목표는 없어요. 그냥 계속 한결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온전히 수회하면 저도 똑같이 커가나. 그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보상이 성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이유죠. 왜냐? 그쵸? 네. 그게 첫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복잡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어쨌든 Y라는게 생기기 마련인데 닥님을 움직이게 하는 Y가 뭔지 그거를 저희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먼저 얘기시켜드리면 저는 제가 하고싶은걸 하기위해 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인거 같아요

창업자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창업팀을, 창업자를 이제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뇌과학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첫번째 창업자는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창업자로 패스트 스캔형? 탐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고 속도가 진짜 수치에도 민감하시고 굉장히 실패를 빨리 겪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빠릅니다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실패했어 다음날 이거 해! 이런 유형이 있구요 모델형인 창업자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잉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전략들을 막 짜서

거기서 최선의 전략을 골라서 조금 행동은 느리지만 수행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가 제 유형이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창업이 재밌는 거고 저는 그런 전략을 짜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우리 서비스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거나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거나 이거를 하기 위해 이 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Y를 설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행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빠르게 가져가고 그게

상호 보완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닥님의 와인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가족적인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하고싶었던걸 못해왔던건가?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어 나는 누구보다 이러면서 살아야겠어 라는 생각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힘들면 나중에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 와이가 하면 소박하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지금의 엄청난으로만 들어지는 거고.